

### 이종석 통일 “韓-美간 이견 있다” 발언 파문



이종석 통일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보고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 ‘위험한 안보관’ 질타

### 외교가 “北미사일 외교 미묘한 시점 부적절한 발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한 TV방송에서 언급한 ‘한미간에 이견이 있다’는 발언과 관련 24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쏟아졌다. 외교가에선 이 장관의 발언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산가족 상봉 중단,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인력 철수 등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이 정부의 판단실수 및 안이한 대응에서 비롯됐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북한 미사일문제에 있어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다”는 이종석 장관의 전날 TV 인터뷰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이 장관의 즉각 교체를 거듭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장관 교체보다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비중을 뒀다.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한반도가 위기상황으로 치닫하고 있는데도 최근 들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단 한차례만 열렸고 그나마도 대통령이 아니라 이 장

관이 주재했다”면서 “현 정부의 평화변경정책은 완전 실패작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이 장관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업외교관 출신의 우리당 정의용 의원은 회의에 앞서 “미국은 한미간에 긴밀히 공조가 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이 취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도 만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이 ‘한미간에 이견이 있고 미국이 잘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과연 적절할 것인가”고 지적했다.

▲엇갈린 외교가 반응=이날 서울 외교가에서도 이 장관의 발언이 화두에 올랐다. 양국간에 이견이 있다고 공개한 고위 당국자가 이 장관 혼자만 아니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일각에서 이 문제를 ‘정부 비판’의 소재로 줄곧 활용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 장관의 ‘고백’은 공격적인 측면이 다분한 것으로 외교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미국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은 일단 이 장관의 발언이 나오기까지의 맥락을 잘 보자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한미 간에는 한

미동맹이라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기에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없지만 차이가 나는 것은 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당국자는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분단국가의 통일정책을 맡은 장관이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채택, 그리고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관련국들의 미묘한 외교전이 펼쳐지는 현 시점에서 이 장관이 오히려 소지를 유발할 장소에 나가 민감한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외교가의 반응이 엇갈렸다.

특히 “논리적으로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한 것”이라며 북한 미사일 사태와 관련된 미국의 착오를 지적한 것이나 ‘안보불감증’을 꼬집은 듯한 바벨 벨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실제) 그렇다면 흔해죽은 못한다”고 대답한 것이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 레바논 사태

### 외교해결 이번주 분수령

## 평화유지군 등 ‘중재’ 급물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로 4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레바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레바논 사태의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유럽-아랍간 긴급회의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23일 중동 방문길에 올랐고, 영국·프랑스·독일 정부는 라이스 장관의 도착에 앞서 지난주 중동으로 특사를 보내 이스라엘 관리들과 개별 접촉에 나서서 등 ‘중재 외교’를 본격화 했다.

레바논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은 로마 회의를 통해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여 이번주가 사태 해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기류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군당국이 24일 헤즈볼라 병사 2명을 처음으로 납치해 헤즈볼라의 대응 여하에 따라 사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달리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비난해온 영국, 프랑스, 독일은 외무장관이나 차관을 중동으로 급파, 이스라엘군과 레바논 시아파 무장조직인 헤즈볼라간 충돌을 끝내고 휴전을 이끌어내는데 외교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 미국 이스라엘과 개별 접촉

### 유럽·아랍간 26일 긴급회의

필립 두스트-블라지 프랑스 외무장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러 독일 외무장관, 킴 하웰스 영국 외무차관이 모두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관리들과 회담을 가졌다.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 속에 이스라엘 제3도시 하이파를 방문했던 두스트-블라지 외무장관은 “내가 예루살렘이나 베이루트에 던지는 질문을 똑같다”면서 “어떻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휴전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강한 어조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는 킴 하웰스 외무차관도 하이파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군사작전의 범위를 두고 굉장히 걱정이 됐다”면서 “우리는 이번 분쟁이 조속히 중단되기를 희망한다”며 이스라엘의 자세 전환을 요구했다.

이러한 중재 노력 속에서 레바논 남부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이 주도하는 국제평화유지군을 배치시키는 논의가 급부상 하

고 있으며, 아미드 페레즈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보인 상태이다.

그러나 라이스 국무장관은 즉각적인 휴전이 헤즈볼라의 무력화시키거나 국경에서 패퇴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재부상을 부를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잘못된 약속”이라고 반대해 성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전투기가 23일 피난길에 오른 여성과 어린이 등 민간인이 탑승한 미니버스에 미사일 공격을 퍼부어 3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논란이 일고 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에 의해 소개 명령이 내려진 레바논 남부 산악지대 ‘타이리’ 마을을 벗어나기 위해 70여명의 민간인이 미니버스에 탑승해 지중해 연안도시인 티레 방향으로 12km를 이동하던 순간 ‘헬파이어’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피신할 것을 명령한 뒤여서 피난행렬에 대한 미사일까지 동원한 무차별 공격행위는 향후 국제사회의 비판이 예상되는 등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우삼 기자 로미오터·AP=연합뉴스

2007년 7월 입주예정

주최진시관 개관중

교육8학군, 금호지구 로렌시아-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정품대특제

부동산대특제	5%
부동산대특제	5%
부동산대특제	5%
부동산대특제	5%
부동산대특제	5%
부동산대특제	5%
부동산대특제	5%
부동산대특제	5%
부동산대특제	5%
부동산대특제	5%

광주광역시 대표할 교육프리미엄의 중심- 금호지구 로렌시아

내 삶의 품은 휴양지- 로렌시아

개관일 7월 25일(목) 28일(일)

35평형 | 257세대

문의번호 682-1300

## 日 총리 야스쿠니 참배 “반대” 급등

### ‘히로히토 합사불과 메모’ 공개 이후 여론 반전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둘러싸고 팽팽했던 여론이 소와(昭和·1901~1989)천황이 A급 전범 합사를 못마땅하게 여겨 참배를 중단했음을 보여주는 메모의 발견으로 확연히 ‘반대’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마이니치(毎日)신문이 22~23일 유권자 1천65명을 상대로 전화조사한 결과 ‘차기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반대가 과반인 54%로 찬성(33%)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 1월 같은 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동일한

47%로 의견이 갈렸었다.

신문은 쇼와천황 관련 메모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유력한 ‘포스트 고이즈미’이면서 취임 후 참배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의 향후 대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차기 총리에 걸맞은 자민당 정치인’ 중 아베 장관을 고른 사람 가운데 참배 반대가 48%로 찬성(42%)을 앞섰다.

또 고이즈미 총리의 ‘8·15 참배’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54%로 36%에 그친 찬성을 크게 웃돌았다.

고이즈미 총리의 취임 직후였던 2001년 5월 조사에서는 8·15 참배에 대한 반대가 7%에 그쳤었다. A급 전범의 분사에 대해서는 찬성이 63%로 반대(23%)를 크게 웃돌았고 야스쿠니신사를 대체하는 ‘무종교추도시설’의 건립 여부에 대해서도 찬성이 64%로 반대(25%)를 앞섰다.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이 지난 21-23일 성인 966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반대가 53%로 찬성(28%)을 크게 앞섰다.

도쿄=연합뉴스

### 샤론 전 이스라엘 총리 위독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982년 레바논 침공의 주역이었던 아리엘 샤론(78·사진) 전 이스라엘 총리가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샤론은 지난 1월 4일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수 차례의 뇌수술 등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벨아비브 인근의 장기요양시

설인 텔 하쇼메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스라엘 언론은 담담 의료진을 인용해 샤론의 상태가 악화됐다고 23일 보도했다.

텔 하쇼메르 병원 측은 최근 며칠 사이 샤론의 신장 기능이 악화하면서 복수(腹水)가 차고, 뇌 조직에도 변화가 생긴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고 적절한 처치를 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가족이 샤론을 곁에서 지키고 있다고

말해 최악의 경우 임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키리=연합뉴스